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본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와 정책적 함의*

A Study on the Income Class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the Policy Implications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이 성 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 교 수 성 미 애***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 Lee, Seong-Lim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g, Miai

<Abstract>

Using data from the 2008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ome class differenc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aring and educating a child in early childhood. The sample consisted of 1,849 households with a child aged 6 years or le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ower-income class was more likely to rely on child care centers and less likely to use services provided by kindergarten or private education. Their total amount of time required to provide c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 was about 4 or 5 hours less than that of the other income classes; this resul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y consumed less hours for home care, kindergarten, and private education. Second, we found there we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between middle-income and upper-income class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to care for and educate their young children; however, the middle-income class used less private education than the upper-income classes in terms of usage rate and length of time. Lastly, the other variables which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included mother's employment, age of the child, and having siblings, and the family siz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ere suggested.

▲주요어(Key Words) : 소득계층(income classes),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public policy of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형태 분석 및 정책방안] 중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보육과 교육 실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이성립(E-mail : clothilda@skku.edu)

*** 교신저자 : 성미애(E-mail : eliza_s@knou.ac.kr)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 보육 및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기는 신체, 감각, 운동 발달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시기로, 다양한 인지능력과 정서반응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애착을 형성하면서 사회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행동양식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Lee & Sung, 2012, 177-211). 따라서 이 시기의 돌봄 및 교육은 한 개인이 자아존중감을 갖고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건강한 시민을 길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인생의 출발 선상에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균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조건은 이후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문제를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중산층 가족의 경우 부모권과 노동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이 기획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일방적으로 부모의 부모권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산층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의 권리를 차별하며, 이는 이후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대 간 전이와도 연결된다는 Mink(김은정, 2004)의 주장에서 볼 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재단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 차원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정책으로, 그리고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삶의 초기에 조건의 균등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보육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즉 출산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주로 보육비 절감, 시설 확대 및 질 관리 측면 등의 보육정책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만 5세 아동에게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 및 교육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어린이집의 세부 운영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2. 9. 25).

하지만 2013년에는 2012년에 발표되었던 전면적인 무상 보육 정책이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의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보육 지원 정책이 이해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전면 무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0-2세 자녀를 둔 가구의 요구를 보육 정책이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 보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그 적용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였던 것을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의 보육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돌봄 및 교육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보육 정책이 개편되기 이전 시기인 2008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에 의한 가정 내 돌봄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어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득계층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영유아 돌봄과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들(Lee, 2010, 2011; Park, 2006)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에 대한 이용과 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주로 다룬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돌봄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과 비용뿐 아니라 자녀에게 투여되는 가정돌봄을 포함한 전체 돌봄과 교육 시간으로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소득계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소득계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시간과 시간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소득계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비 지출과 비용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차세대가 되는 아동의 출발선에 주목하여 사회적 통합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정책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은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영유아의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경험, 활동을 자극하거나 발달상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05).

산업화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되면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개념도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전에는 주로 빈곤층 어머니의 취업이나 건강 및 특별한 사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가정이 아닌 다른 보육기관에서 보호하는 탁아의 개념이었다(Jeon, Kim, & Lee, 2006, 17). 그러나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점차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개념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차츰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Yang et al., 2002: 13). 특히 오늘날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한편, 자녀 돌봄은 사회적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별 가족에서 자녀 돌봄 및 교육을 바라보면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원래 보육 정책은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지만, 여성의 노동권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권 및 가족의 가족생활권, 나아가 아동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보육 문제는 부모의 일-가족 균형을 이루는 문제와 자녀의 성장 발달,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애착 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하는 가족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자녀 돌봄 및 교육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이 집약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각도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Ha, 2001; Huh & Suk, 2011; Kim & Cho, 2002)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및 보육시간의 확대, 어린이집의 질 관리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보육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취업한 맞벌이 가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두 번째는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Hyun, 2005, Lee, 2010, 2011; Park, 2006)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자녀 돌봄 및 교육비가 가계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자녀양육 부담이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았다. 세 번째는 부모권, 가족생활권 및 아동권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에 접근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Jang, 2009; Rho, 2010; Shin, 2009; Song et al., 2009)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가 여성의 노동권 확보 문제에서만 조망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부모의 부모권, 가족의 가족생활권, 아동의 아동권이라는 입장에서 폭넓게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전일제 보육정책을 비판하며,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정책보다 부모에게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정책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통합 입장에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의 질에 접근하는 연구들(Huh & Park, 2010; Kim, 2008)이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족이나 이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상황에서의 자녀 돌봄 및 교육의 문제점에 접근하면서 삶의 출발선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인권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안의 하나로 영유아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를 고찰한 선행연구들(Baek, 2000; Kang et al., 2000; Lee, 2009; Lee & Kim, 2009; Shin, 2008)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의 일자리 유무와 일자리 유형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만6세에서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 돌봄 및 교육비에 대해서 대다수의 부모는 부담을 느끼며, 이러한 부담은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 비용의 대부분(85~92%)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많은 아동학자가 반대하고 있지만, 부모의 경우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야간 보육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고 영유아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에서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 보육 및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이용과 보육비 지출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소득계층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착안해서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 시간 배분, 비용 지출과 부담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간과되는 가정보육도 포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본격적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의 제2차 여성가족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거나 2013년부터 시행될 보육정책이 가정의 영유아 자녀 돌봄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시행될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 실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에 9,168 가구 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가구사항, 가족관계, 결혼만족도, 결혼력, 직업력, 자녀보육, 돌봄, 가사노동, 직업, 근로조건, 직장 내 차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008년에 실행된 2차년도 조사에서는 원가구와 분가가구를 포함하여 7,750가구, 8,364명이 조사되었다(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이주영, 강석훈, 2009).

본 연구는 제2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849가구 중 자녀양육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은 9가구와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관해 부실하게 응답한 2가구를 제외한 총 1,838가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당 영유아 자녀 1명에 대한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를 고찰하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로 조사된 자녀를 가구의 대표 영유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가구 내 다른 영유아 및 취학 연령대 형제자매 유무와 형제 서열은 분석대상 영유아의 배경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2. 변수의 정의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은 크게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영유아 자녀는 가정 내 돌봄을 받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에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이 어떻게 추가되어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결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유형은 가정 내 돌봄, 가정 내 돌봄+어린이집, 가정 내 돌봄+유치원, 가정 내 돌봄+사교육, 가정 내 돌봄+어린이집+사교육, 가정 내 돌봄+유치원+사교육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시간은 분석대상 자녀가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을 받은 시간의 총 합으로 정의하였다. 가정 내 돌봄은 영유아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원에 의한 돌봄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원 이외의 개인이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한 시간을 포함한다.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비용은 분석대상 영유아 자녀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을 위해 가구가 한 달 동안 지출한 금전적 비용과 비(非) 금전 비용의 총 합으로 정의하였다.

영유아 가구의 소득계층은 중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중층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를 상층, 낮은 가구를 하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분포에서 일정 비율을 중간 소득계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10분위 소득분포에서 가운데 4, 5, 6, 7분위(중간 약 40%)를 중층으로 정의하여, 하층은 가구소득 하위 30%, 중층은 중간소득계층 40%, 상층은 상위 30%에 해당한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하층의 연간 가구소득은 약 2,022만원, 중층 약 3,311만원, 상층 5,740만원으로, 상층의 소득은 하층보다 약 2.8배 정도 높았다.

Table 1. Frequencies of the Income Classes and Their Annual Average Income

income classes	lower	middle	upper
frequencies(%)	551 (29.96%)	715 (38.88%)	573 (31.16%)
annual average income (STD)	2,022 (462)	3,311 (365)	5,740 (1,726)

3. 자료분석

소득계층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영유아 자녀 돌봄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서비스별 돌봄 및 교육 시간과 비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소득계층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분분석(Multinomial logit)을 실시하였다. 셋째, 돌봄 및 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비이용자의 시간이 0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의 경우 Tobit 분석, 가정 내 돌봄 시간과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은 최소좌승 다중회귀분석(Multiple OLS)을 실시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방법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계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시간배분 회귀모형에서는 총 돌봄 및 교육시간이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1단계에서 총 돌봄 및 교육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총 돌봄 및 교육시간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회귀모형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정 내 돌봄 시간 비중은 모든 가구에서 관찰되고 있어서 2단계에서 OLS 회귀분석을 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 비중은 비이용자의 경우 0으로 관측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2단계 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및 교육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가정 내 돌봄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이 각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먼저 각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이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전체 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이 0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AS 9.2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소득계층별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¹⁾

1)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제시하지 않았음.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2011-37-4) [소득계층별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득계층별로 가구 특성과 영유아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에서는 어머니의 과반수가 비취업(85.27%) 상태이며, 과반수가 고졸이하(59.27%)의 학력이었다. 그리고 과반수가 1명의 영유아 자녀(58.73%)를 두고 있었으며, 총 자녀수는 평균 1.91명, 영유아 자녀수는 평균 1.46명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녀가 거의 반반이었는데 여아(51.09%)가 조금 많았으며, 자녀의 연령은 1세부터 6세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영유아 자녀의 평균 연령은 3.48세였다. 형제자매는 영유아인 경우(41.27%)와 없는 경우(30.91%)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형제서열은 과반수가 첫째(64.00%)였다. 중층에서도 어머니의 과반수가 비취업(81.68%) 상태이며, 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고졸이하(46.29%)의 학력이었다. 그리고 과반수가 1명의 영유아 자녀(56.92%)를 두고 있었으며, 총 자녀수는 평균 1.92명, 영유아 자녀수는 평균 1.46명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녀가 거의 반반이었는데 남아(51.47%)가 조금 많았으며, 자녀의 연령은 1세부터 6세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영유아 자녀의 평균 연령은 3.84세였고, 형제자매는 영유아인 경우(43.08%)와 없는 경우(22.52%)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형제서열은 과반수가 첫째(59.02%)였다. 상층에서는 하층과 중층과는 달리 어머니의 취업 비율이 높아서 과반수가 비취업이긴 하였지만, 42.93%가 취업 상태였으며, 과반수가 대학 이상(50.44%) 학력을 보였다. 그리고 과반수가 1명의 영유아 자녀(63.00%)를 두고 있었으며, 총 자녀수는 평균 2.01명으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높았고, 영유아 자녀수는 평균 1.40명으로 비슷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다른 소득계층과 마찬가지로 남녀가 거의 반반이었는데 남아(51.13%)가 조금 많았으며, 자녀의 연령은 1세부터 6세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영유아 자녀의 평균 연령은 3.91세였고, 형제자매는 취학형제인 경우(41.71%)와 영유아인 경우(37.00%)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형제서열은 과반수가 첫째(51.66%)였다.

이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비교적 비슷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보이는 하층과 중층과는 달리 상층에서는 어머니의 취업률 및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4세 이상 유아의 비중이 높고, 형제자매가 있거나 형제서열 둘째 이상의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을 살펴본 결과, <Table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유형은 6가지(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어린이

출산양육 형태 분석 및 정책방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ample by Income Classes

N=1,838

income classes		lower		middle		upper	
		frequencies	(%)	frequencies	(%)	frequencies	(%)
mother's employment	yes	81	(14.73)	131	(18.32)	246	(42.93)
	no	469	(85.27)	584	(81.68)	327	(57.07)
mother's education level	under highschool graduate	326	(59.27)	331	(46.29)	164	(28.62)
	college graduate	126	(22.91)	188	(26.29)	120	(20.94)
	over univ. graduate	98	(17.82)	196	(27.41)	289	(50.44)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one	323	(58.73)	407	(56.92)	361	(63.00)
	two	203	(36.91)	285	(39.86)	195	(34.03)
	three and more	24	(4.36)	23	(3.22)	17	(2.97)
number of total children	one	269	(48.91)	365	(51.05)	284	(49.56)
	two	174	(31.64)	251	(35.10)	174	(30.37)
	three and more	107	(19.45)	99	(13.85)	115	(20.07)
sex of children	boy	269	(48.91)	368	(51.47)	293	(51.13)
	girl	281	(51.09)	347	(48.53)	280	(48.87)
age of children	under one	101	(18.36)	105	(14.69)	83	(14.49)
	two	86	(15.64)	75	(10.49)	51	(8.90)
	three	77	(14.00)	91	(12.73)	71	(12.39)
	four	96	(17.45)	124	(17.34)	110	(19.20)
	five	97	(17.64)	168	(23.50)	128	(22.34)
	six	93	(16.91)	152	(21.26)	130	(22.69)
sibling	none	170	(30.91)	161	(22.52)	122	(21.29)
	preschool age sibling	227	(41.27)	308	(43.08)	212	(37.00)
	school age sibling	153	(27.82)	246	(34.41)	239	(41.71)
birth order	first	352	(64.00)	422	(59.02)	296	(51.66)
	second and more	198	(36.00)	293	(40.98)	277	(48.34)
		mean	(STD)	mean	(STD)	mean	(STD)
total number of children		1.91	(0.76)	1.92	(0.62)	2.01	(0.70)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1.46	(0.59)	1.46	(0.56)	1.40	(0.55)
age of preschool children		3.48	(1.80)	3.84	(1.80)	3.91	(1.77)

집+사교육, 유치원+사교육)로 구분할 수 있었다. 소득계층 하층에서는 다른 계층과 달리 주로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36.9%)에 보내거나 가정 내 돌봄만(31.8%)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중층이나 상층에서는 어린이집(28.6%, 27.0%), 유치원(25.0%, 25.4%), 가정 내 돌봄(24.4%, 20.5%)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중층의 약 11.6%, 상층의 11.9%는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층에 비해 교육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소득계층별 영유아 돌봄 및 교육 방법이 다른 것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하층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가 있는 3세 이하 영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돌봄보다는 유아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인 4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층의 경우는 여전히 반수가 어린이집(50.00%)을 이용하는 데 비해, 중층과 상층에서는 과반수가 유치원(55.18%, 54.08%)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상층은 하층에 비해 교육 중심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 연령 분포가 소득계층별로 차이

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소득 계층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Table 5> 참조). 회귀계수는 가정 내 돌봄만을 하고 어

Table 3. Us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by Income Classes

	lower		middle		upper	
	frequencies	%	frequencies	%	frequencies	%
only home care	174	31.8	174	24.4	117	20.5
+child care center	202	36.9	204	28.6	154	27.0
+kindergarten	102	18.6	178	25.0	145	25.4
+private education	27	4.9	36	5.1	51	8.9
+child care center+private education	25	4.5	38	5.3	36	6.3
+kindergarten+private education	18	3.3	83	11.6	68	11.9
total	548	100	713	100	571	100

Table 4. Us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Child Aged 4 Years and More by Income Classes

	lower	middle	upper
child care center	143 (50.00%)	172 (38.74%)	122 (33.15%)
kindergarten	108 (37.76%)	245 (55.18%)	199 (54.08%)

Table 5. Results of the OLS and Tobit Analysis of the Us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efficient

(reference group: home care only)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child care center +private education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income lower	0.10	(0.22)	-0.57*	(0.26)	-0.84**	(0.32)	-0.78*	(0.35)	-1.63***	(0.36)
middle	0.05	(0.21)	-0.11	(0.24)	-0.63*	(0.29)	-0.40	(0.32)	-0.23	(0.28)
mother's employment	1.53***	(0.22)	1.09***	(0.25)	0.74*	(0.30)	0.87**	(0.33)	0.54	(0.30)
mo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0.15	(0.21)	-0.04	(0.24)	0.30	(0.31)	0.09	(0.32)	0.04	(0.31)
over univ. graduate	-0.25	(0.20)	-0.21	(0.23)	0.41	(0.29)	-0.19	(0.32)	0.40	(0.28)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30*	(0.12)	-0.35*	(0.14)	-0.36*	(0.18)	-0.60**	(0.21)	-1.15***	(0.23)
sex of children boy	0.09	(0.16)	0.12	(0.19)	0.01	(0.23)	0.06	(0.25)	0.05	(0.23)
child age	0.98***	(0.07)	1.59***	(0.08)	1.13***	(0.09)	1.47***	(0.11)	1.99***	(0.12)
birth order first	0.65	(0.36)	0.30	(0.40)	0.55	(0.56)	0.21	(0.51)	0.22	(0.50)
preschool aged sibling yes	1.24***	(0.26)	1.05**	(0.32)	0.17	(0.37)	1.07*	(0.44)	1.53***	(0.43)
school aged sibling yes	0.67	(0.42)	0.78	(0.48)	-0.02	(0.63)	-0.08	(0.63)	0.43	(0.60)
constant	-2.69***	(0.66)	-4.90***	(0.79)	-3.43***	(1.01)	-4.12***	(1.12)	-4.45***	(1.15)

Log-likelihood=-2256.7, Chi-squared=1347***, Pseudo R²=0.23

*p < .05, **p < .01, ***p < .001

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교육을 하지 않을(기준집단) 확률 대비 각 유형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교육 이용에 어머니의 취업, 자녀연령, 영유아 형제자매는 양(+의) 효과를, 가구원수는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은 가정 내 돌봄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이나 사교육이 포함된 다른 모든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유형 선택에 대해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beta = -.57^*, -.84^{**}, -.78^*, -1.63^{***}$). 즉 하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 이용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3.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시간

영유아 자녀는 매 순간 양육자가 지켜보며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양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시간은 아동권과 부모권 및 노동권의 균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소득계층별 주당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시간을 살펴본 결과, <Table 6>에 제시되어 있듯이 하층은 주당 약 66시간, 중층은 약 70시간, 상층은 약 71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즉 하층의 영유아 자녀는 상층에 비해 약 5시간 정도, 중층에 비해 약 4시간 정도 돌봄 및 교육을 받는 시간이 적었다.

그리고 하층에서는 3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 시간에 대한 수요가 중상층에 비해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돌봄 시간 역시 중층보다 일주일에 약 0.86시간, 상층보다 약 0.83시간 정도 적었다. 반면, 하층의 영유아 자녀들은 주로 어린이집(약 14시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중층 및 상층은 기본적인 가

정 내 돌봄(약 46시간, 약 46시간)과 어린이집 (약 11시간, 약 12시간)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약 11시간, 약 12시간)이 상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층에서는 중층에 비해 사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약 2.16시간) 총 양육 시간이 다른 계층보다 높았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소득계층이 돌봄 및 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돌봄 및 교육에 보내는 주당 시간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정 내 돌봄과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은 OLS 회귀분석을, 비이용자의 시간이 0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은 Tobit 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하층은 중층 및 상층보다 가정 내 돌봄 시간($\beta = -.16^{**}$), 유치원 시간($\beta = -1.06^{***}$), 사교육 시간($\beta = -1.53^{***}$), 그리고 총 양육시간($\beta = -.13^{**}$)이 유의하게 작았고,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beta = 1.00^{**}$)은 유의하게 컸다.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 시간($\beta = 1.45^{***}$), 사교육 시간($\beta = .89^{***}$)이 증가되는 전반적인 양상이 하층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중층은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 총 양육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교육 시간($\beta = -.72^{**}$)은 상층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가정 내 돌봄 시간($\beta = -.13^*$)은 유의하게 줄고, 어린이집 시간($\beta = 1.54^{***}$)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 학력 이상인 경우, 다른 돌봄 및 교육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사교육 시간($\beta = 1.04^{***}$)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영유아 형제가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beta = 1.93^{***}$)과 총 양육시간($\beta = .11^*$)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방법에 의해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계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돌봄 및 교육 시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참조).

Table 6. Weekly Tim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home care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total time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lower	45.38	(32.67)	13.59	(16.72)	6.78	(13.19)	0.47	(1.69)	66.22	(31.41)
middle	46.24	(31.75)	11.34	(16.39)	11.03	(15.07)	1.27	(3.53)	69.87	(29.96)
upper	46.21	(32.39)	11.55	(16.88)	11.53	(15.58)	2.16	(5.46)	71.45	(32.73)

2) 모든 가구에서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과 총 양육시간은 실제 돌봄 시간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의 경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비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0으로 대입하였음.

Table 7. Results of the OLS and Tobit Analysis of the Weekly Tim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home care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total tim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income lower	-0.16**	(0.06)	1.00**	(0.29)	-1.06***	(0.28)	-1.53***	(0.29)	-0.13**	(0.04)
middle	-0.07	(0.06)	0.22	(0.27)	-0.04	(0.24)	-0.72**	(0.23)	-0.04	(0.04)
mother's employment	-0.13*	(0.06)	1.54***	(0.25)	-0.25	(0.23)	-0.40	(0.23)	0.03	(0.03)
mo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0.06	(0.06)	-0.28	(0.27)	0.05	(0.26)	0.44	(0.26)	-0.04	(0.04)
over univ. graduate	0.01	(0.06)	-0.46	(0.26)	0.07	(0.24)	1.04***	(0.24)	-0.06	(0.04)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02	(0.04)	-0.10	(0.16)	-0.32*	(0.16)	-0.56**	(0.17)	-0.06**	(0.02)
sex of children										
boy	-0.02	(0.05)	-0.00	(0.21)	0.04	(0.20)	-0.11	(0.19)	-0.02	(0.03)
age of children	-0.13***	(0.01)	0.14*	(0.07)	1.45***	(0.08)	0.89***	(0.08)	0.01	(0.01)
birth order										
first	0.14	(0.10)	0.68	(0.44)	-0.46	(0.40)	-0.21	(0.41)	0.03	(0.06)
preschool aged sibling -yes	-0.00	(0.08)	1.93***	(0.36)	0.68	(0.37)	-0.07	(0.35)	0.11*	(0.05)
school aged sibling yes	0.02	(0.12)	1.01	(0.53)	0.60	(0.50)	-0.50	(0.49)	0.01	(0.07)
constant	4.06***	(0.19)	-3.23***	(0.90)	-5.72***	(0.89)	-3.40***	(0.90)	4.33***	(0.12)
R ² /Pseudo R ²	0.072		0.022		0.123		0.108		0.018	
Log-likelihood	-		-2488.4		-2064.7		-1085.7		-	
LR-test X ²	-		113.5***		580.1***		262.4***		-	

*p < .05, **p < .01, ***p < .001

총 양육시간, 가구특성과 영유아 자녀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면, 소득계층은 유치원과 사교육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정 내 돌봄과 어린이집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득계층 하층은 상층에 비해 유치원($\beta=-22.21^*$)과 사교육($\beta=-9.52^*$)에 배분되는 시간 비중이 유의하게 작았고, 중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beta=-4.75^*$)에 배분되는 시간 비중이 유의하게 작았다. 어머니의 취업과 영유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는 가정 내 돌봄 시간($\beta=-9.89^{***}$, $\beta=-13.50^{**}$)과 어린이집 시간($\beta=25.88^{***}$, $\beta=36.09^{***}$)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될수록 유의하게 가정 내에서 돌봐지는 시간($\beta=-8.59^{***}$)보다는 어린이집($\beta=3.04^*$), 유치원($\beta=24.06^{***}$), 사교육($\beta=6.16^{***}$)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돌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득계층 하층에서는 어린이집으로 가정 내 돌봄 시간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함

으로써 가정 내 돌봄을 대체할 수 있었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유아 자녀가 있을 경우 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나 영유아 형제자매가 있어 가정 내 돌봄을 하지 못할 때는 유치원이나 사교육보다는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하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유치원이나 사교육 등 자녀 교육 측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고, 중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짧았다.

4. 소득계층별 영유아 돌봄 및 교육 비용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Table 9>에 제시되어 있듯이 소득계층 하층의 돌봄 및 교육비 지출 수준은 상층 지출 수준의 약 38% 정도에

Table 8.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Share of the Total Child Care and Education Time

	home care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log(total time)	52.71	(31.37)	-49.81	(69.35)	-71.89	(68.70)	16.36	(28.76)
income lower	6.13	(4.74)	9.92	(10.45)	-22.21*	(10.50)	-9.52*	(4.42)
middle	1.72	(2.58)	1.65	(5.76)	-2.40	(5.59)	-4.75*	(2.33)
mother's employment	-9.89***	(2.34)	25.88***	(5.16)	-1.21	(5.09)	-4.22	(2.18)
mo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1.25	(2.50)	-5.23	(5.55)	-0.68	(5.55)	3.81**	(2.37)
over univ. graduate	5.84*	(2.84)	-12.44	(6.33)	-3.37	(6.03)	7.21	(2.63)
number of household members	5.49*	(2.35)	-5.42	(5.22)	-9.33	(5.20)	-2.30	(2.23)
sex of children								
boy	0.80	(1.80)	0.17	(4.01)	-2.04	(3.97)	-0.33	(1.65)
age of children	-8.59***	(0.63)	3.04*	(1.44)	24.06***	(1.65)	6.16***	(0.66)
birth order								
first	-0.03	(3.83)	8.95	(8.40)	-7.69	(8.09)	0.10	(3.52)
preschool aged sibling								
yes	-13.50**	(4.54)	36.09***	(10.14)	16.95	(10.30)	-3.76	(4.23)
school aged sibling								
yes	-4.01	(4.44)	14.33	(9.80)	10.03	(9.76)	-4.88	(4.12)
constant	-139.19	(136.00)	165.99	(300.49)	215.82	(297.81)	-96.23	(124.72)
Wald Test χ^2	359.73***		84.25***		298.47***		151.8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9. Monthly Cos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00 KW

	home care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total cost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lower	1.64	(10.46)	5.59	(8.88)	3.33	(7.70)	1.09	(3.43)	11.66	(15.68)
middle	1.87	(11.65)	6.27	(11.06)	7.65	(12.04)	2.95	(7.32)	18.74	(19.15)
upper	6.54	(20.16)	8.25	(13.20)	10.41	(16.62)	5.10	(11.51)	30.31	(27.59)

불과하였다. 즉 상층은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비로 월 평균 약 3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준은 하층보다 약 2.6배 정도 많은 지출이었다. 그에 비해 하층은 약 12만원, 중층은 약 19만원 정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유형에 상관없이 소득계층별로 지출 규모가 차이가 있어 상, 중, 하층 순서로 지출 수준이 컸다.

소득계층에 따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및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0>,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정 내 돌봄 지불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은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유형의 돌봄 및 교육 이용 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 각 유형별 돌봄 및 교육 시간을 추정된 후, 2단계에서는 이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전체 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이 0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10> 참조).

Table 10. Results of the Two Stage Tobit Analysis of the Cos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ome care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total cost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log(child/education time)	-13.04	(6.70)	0.65	(0.50)	2.55	(1.31)	1.78	(1.62)	-3.97	(2.58)
income lower	-5.30**	(1.62)	-0.47*	(0.23)	-0.15	(0.49)	-0.42	(0.45)	-1.56***	(0.39)
middle	-4.13***	(1.18)	-0.29*	(0.12)	-0.17	(0.13)	-0.18	(0.26)	-0.72**	(0.21)
mother's employment	0.27	(1.39)	0.12	(0.32)	-0.09	(0.17)	-0.55**	(0.17)	0.56**	(0.19)
mother's education level	-1.75	(1.22)	0.01	(0.13)	0.08	(0.13)	0.16	(0.16)	-0.10	(0.21)
college graduate										
over univ. graduate	0.90	(1.02)	0.05	(0.14)	0.25*	(0.13)	0.24	(0.28)	-0.03	(0.23)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75	(0.66)	-0.13	(0.07)	-0.15	(0.14)	-0.32*	(0.15)	-0.56**	(0.19)
sex of children boy	0.35	(0.84)	-0.07	(0.09)	0.04	(0.10)	-0.08	(0.11)	-0.04	(0.15)
age of children	-2.27*	(0.92)	0.00	(0.04)	-0.40	(0.55)	0.22	(0.20)	0.57***	(0.05)
birth order first	2.11	(2.12)	0.50*	(0.24)	0.60*	(0.29)	0.25	(0.25)	0.53	(0.31)
preschool aged sibling yes	-0.66	(1.39)	0.52	(0.39)	0.10	(0.18)	0.22	(0.21)	1.02**	(0.37)
school aged sibling yes	-0.18	(2.23)	0.46	(0.30)	0.34	(0.26)	-0.01	(0.32)	0.53	(0.37)
constant	48.28	(27.43)	-1.23**	(0.47)	-1.74***	(0.46)	-1.39*	(0.67)	18.19	(11.18)
Model Test Wald X ²	24.00*		123.40***		429.88***		202.62***		263.08***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 총 양육비 지출은 시간을 통제해도 상층에 비해 하층($\beta=-1.56^{***}$)과 중층($\beta=-.72^{**}$)에서 지출하는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지출이 적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가정 내 돌봄 비용($\beta=-5.30^{**}$)과 어린이집 이용료($\beta=-.47^*$)가 상층에 비해 적었으며, 중층 역시 상층에 비해 가정 내 돌봄 비용($\beta=-4.13^{***}$)과 어린이집($\beta=-.29^*$)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었다. 하층에서 어린이집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낮은 것은 정부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층은 자료 수집 연도인 2008년 당시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중층이 상층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 이외에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는 영유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beta=1.02^{**}$), 자녀연령이 높을수록($\beta=.57^{***}$),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beta=.56^{**}$), 가구원수가 적을수록($\beta=-.56^{**}$)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하면 사교육비 지출($\beta=-.55^{**}$)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다음, 소득계층별로 돌봄 및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가계의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을 고찰하였다.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총 돌봄 및 교육비 부담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beta=1.97^{***}$), 가구원수($\beta=-1.85^{***}$), 자녀서열($\beta=2.01^*$), 영유아 형제자매($\beta=6.77^{***}$), 취학형제($\beta=6.05^{***}$)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을 하면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그리고 첫째 자녀인 경우, 영유아 형제자매, 취학형제가 많을수록,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원수³⁾의 증가는 양육비 지출 부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수가 많으면 영유아를 돌봐 줄 가정 내 인력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첫째자

3) 회귀모형에서는 자녀서열과 자녀의 형제관계를 통제했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조부모 등 다른 성인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함.

Table 11.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Household Economic Burden of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private education		total cost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income lower	3.42***	(0.75)	-1.35	(0.76)	-2.66***	(0.69)	0.10	(0.60)
middle	0.93	(0.70)	0.71	(0.65)	-1.01	(0.58)	0.13	(0.54)
mother's employment	3.13***	(0.65)	-1.19	(0.63)	-1.87**	(0.59)	1.97***	(0.52)
mo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0.60	(0.70)	0.33	(0.69)	1.12	(0.63)	-0.55	(0.56)
over univ, graduate	-0.74	(0.68)	0.72	(0.65)	2.36***	(0.59)	0.69	(0.54)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61	(0.42)	-1.49***	(0.44)	-1.64***	(0.43)	-1.85***	(0.34)
sex of children								
boy	-0.24	(0.54)	0.13	(0.53)	-0.16	(0.48)	0.40	(0.43)
age of children	0.37*	(0.18)	3.71***	(0.22)	2.13***	(0.19)	-0.01	(0.00)
birth order								
first	2.38*	(1.15)	0.47	(1.10)	0.53	(1.02)	2.01*	(0.92)
preschool aged sibling								
yes	4.28***	(0.93)	1.79	(0.97)	0.28	(0.84)	6.77***	(0.69)
school aged sibling								
yes	2.50	(1.37)	2.60	(1.36)	-0.76	(1.23)	6.05***	(1.08)
constant	-8.27***	(2.33)	-15.01***	(2.41)	-7.43***	(2.19)	5.91**	(1.79)
Log likelihood	2951.69		-2577.73		-1762.79		-5343.42	
LM test χ^2	77.71***		118.41***		23.65*		311.16***	

* $p < .05$, ** $p < .01$, *** $p < .001$

녀이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영유아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자녀가 하나 이상이면 자녀를 돌봄 및 교육 시설에 보낼 가능성이 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돌봄 및 교육 유형별로 지출 부담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영유아 형제가 있는 경우($\beta=4.28***$), 하층($\beta=3.42***$)이 중층이나 상층보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beta=3.13***$), 첫째 자녀인 경우($\beta=2.38*$), 자녀연령이 높을수록($\beta=.37*$) 큼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비에 대한 부담은 자녀연령이 높을수록($\beta=3.71***$) 높으며, 가구원수($\beta=-1.49***$) 증가는 유치원비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beta=2.36***$), 자녀연령이 높을수록($\beta=2.13***$)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beta=-2.66***$),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beta=-1.87**$), 가구원수 증가($\beta=-1.64***$)는 사교육비 부담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예산제약에 따라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밝혀낸 소득계층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층의 경우, 중층이나 상층 영유아 자녀에 비해 양육시간 면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이 적으며, 돌봄 및 교육에 있어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고, 유치원이나 사교육 이용률과 이용시간, 지출 비용이 중상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유치원과 사교육이 돌봄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하층의 영유아 자녀는 중·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층의 경우, 하층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선택의 자유로움이 있으나 상층과 비교하면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시간 당 비용이 가장 높은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상층과 차이를 보여, 중층의 경우 상층에 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나 시간이 적다.

셋째, 상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시간, 비용 부담도 모두에서 가장 제약을 덜 받으며,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한다.

넷째, 소득계층 외에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및 시간, 비용 부담도에는 어머니의 취업, 자녀연령, 다른 영유아 형제자매 유무, 가구원수 등도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며, 이용 시간도 늘리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부담도 높인다. 그리고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내 돌봄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교육 등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다른 영유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는 가정 내 돌봄 시간과 어린이집 시간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영유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여러 자녀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 반면, 가구원수가 증가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이용 확률과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총 양육시간을 통제하면 가정 내 돌봄 시간 배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치원과 사교육을 위한 가계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결국 총 양육비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서열과 자녀의 형제관계를 통제했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조부모 등 다른 성인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적 측면에서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우리사회 어느 소득계층에서도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보다는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는 계층 상승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는 조기교육에 방점이 가면서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 중층 및 상층에 비해 하층의 총 양육시간은 상층에 비해 약 5시간 정도, 중층에 비해 약 4시간 정도 적은데, 이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유치원 및 사교육 시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돌봄 시간조차도 적은 데 기인한다. 2008년 조사 시점 당시 하층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어린

이집 보육비 보조를 받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가정 내 돌봄이 어린이집 돌봄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자녀 돌봄을 용이하게 하기보다는 전체 자녀 돌봄 시간이 축소되는 등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양과 질에 부실과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하게 고찰할 여지가 있다.

또한 하층의 경우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시간이 열악하며, 비용 부담도 큰 상황에서 본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생 출발부터 사회적 통합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돌봄 및 교육 환경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양육관련 비용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과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인데, 소득계층 하층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 중기 맥락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은 인간발달의 초창기에서부터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의 균등에 방점을 뒀야 한다.

둘째, 하층의 경우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더라도 본 연구결과에서 추정해보면, 접근 가능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시설은 어린이집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원래 보육(educare)이라는 용어에는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인 만큼, 하층 영유아 자녀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육아지원서비스 질 관리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시켜 육아지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인생의 출발선상에 있는 영유아가 부모의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하층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이 중층 및 상층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Lee 등(2010)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 양육자는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자녀의 학습지 또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은 자칫 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편적 수준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저소득층 유아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외에 여러 가지 잡부금을 받고 있어 가정에서 지각하는 보육료 부담감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보육료를 전면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어줄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보육료 지원을 주된 지원 내용으로 하는 현행의 보육 지원 정책은 영유아 자녀를 돌볼 때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중·상위 계층에서 자녀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보다 길뿐 아니라 유치원과 사교육 등을 통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육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 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받는 돌봄의 양과 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보육 지원 정책이 해마다 바뀌고 있고, 2013년 시행되는 정책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 대상자들의 반발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보육 정책이 이해 당사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정책은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동떨어진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의 시간과 비용 부담 절감에 초점을 맞춘 현행의 보육 지원 정책은 여성의 노동권 확보에는 충실한 정책이지만, 부모권, 가족생활권 및 아동의 아동권 등 다른 측면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다섯째, 현재 만 2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등 보육 문제를 사회화하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게 한다. 이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성에게 소득 대체효과가 나타나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게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소득대체효과라고 하기에는 그 비용이 미비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 소득계층이나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막론하고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만 2세 이하의 자녀양육은 상당수가 가정 내 돌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Jang et al., 2004; Kim, 2005; Rho, 2010 등)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해당연령의 유아를 시설보다는 가정 내에서 가족 및 친지 또는 베이비시터를 통한 돌봄을 선호한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어도 만 2세까지는 영아기 정서 발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시설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현 정책(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2. 9. 25)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패널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계획했던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책 요구도나 현재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문항이 없어 부모의 목소리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이용 시설, 시간, 비용의 맥락에서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적 맥락에서 영유아 돌봄 및 교육 서비스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

- Baek, S.(2000). The present situations and issues of child care financial strain structure. *Korean Journal of Infant Care* 21, 209-240.
- Ha, J.(2001). The effect of constructivism-based social problem solving activity on children's social play. *The Journal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16, 169-184.
- Heo, N. & Seok, J.(2011). Is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in Korea friendly to working mothers? *Social Welfare Policy*, 38(2), 139-163.
- Huh, S. & Park, H.(2010). Equity analysis of child-care subsidy system in Korea.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3, 177-201.
- Hyun, J.(2005). A Study on the parents' expectation about upbringing service in a social phenomenon of having few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5(2), 157-170.
- Jang, J., Lee, J., Choi, E., & Kim, J.(2004). *The trend of advanced country's work-family balance and policy issues*. Policy report of Korea Labor Institute.
- Jang, Y.(2009). A Study on the childcare voucher as a new system of state's subsidy for childcare: in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8(9), 189-217.
- Jeon, N., Kim, J., & Lee, M.(2006). *Child care and education*. Seoul: Hyungseul Press.
- Kang, M., Kim, M., Lee, K., & Chung, C.(2000). The demand on night and 24 hour child care services. *Korean Journal of Infant Care* 22, 27-56.
- Kim, H.(2008).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child care subsidy system in Korea: An extension of means test subsidy. *Journal of Korean Public Finance*, 1(2), 61-103.
- Kim, J.(2006). *Analysis on the preference to the employed*

- mothers of nursing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 Cho, Y.(2003). Analysis of married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following first childbirth. *Journal of Korean Labor Economic Association*, 26(3), 181-207.
- Kim, S.(2005). Dual earner families' child care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105-116.
- Lee, K. & Kim, J.(2009). Analysis of women's selection pattern on kindergarten-child care centers and private tutoring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ntents*, 9(10), 464-473.
- Lee, M., Kim, K., & Kim, M.(2010). Survey on perceptions of and demands for in-service education of directors and teachers at child care center.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177-205.
- Lee, S.(2010). Childrearing expenditure and the intention to have the second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0), 105-119.
- Lee, S.(2011). Consump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in the households with preschool children. *Human life science*, 14, 117-134.
- Lee, W.(2009). Working mothers' work-child rearing strain and their demand on back-up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117-126.
- Mink, G.(2002). 김은정 역(2004). **복지의 종말- 미국 복지 개혁 비판**-. 서울: 신정.
- Park, S.(2006). Burden of the costs of children and policies influencing low fertility rat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11, 33-49.
- Rho, S.(2010). Current child care situation and the need for child care to support working mothers with a child under 12 mont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3, 111-128
- Lee, S. & Sung, M.(2012). *Human development*.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Song, H., Park, J., Lee, W., Sung, M., Seo, J., & Chin, M.(2009).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ai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97-108.
- Shin, Y.(2008).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on child bir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Affair*, 28(2), 103-134.
- Shin, Y.(2009). Public awareness of the introduction of childcare allowanc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52, 83-98.
- Yang, O., Kim, Y., Kim, H., Shin, H., Wui, Y., Lee, O., Lee, J., Lee, C., Jung, M., Chi, S., & Hong, H. (2002). *Child care and education*. Seoul: Hakjisa Publisher.
- <http://www.mw.go.kr>

접수 일 : 2012년 09월 24일

심사 일 : 2012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19일